

성경 속 “나중”이라는 용어에 숨겨진 엄청난 천기 공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간에게 너무나 큰 희망의 메시지

성경에는 ‘나중’이라는 의미의 용어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성경의 이해지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성경(사34:16)의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와 입으로 모았음이라”라는 지침과 관련하여 ‘나중’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모아 보았다.

- 사41:4 태초에도 나오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 고전15:45~47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肉)있는 자요 나중이 신령한 자나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후에 속한 자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 고전15:26 맨 나중에도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 아니라
- 고전15:51-52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 계21:6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짝이 맞아야 하며 짝이 맞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반어적(反語的)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성경 이해지침(사34:16)에 따라 (나중)이라는 용어가 기록된 말씀들을 모아보면, 그 속에 깃들여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우리나라에 그 내용이 바로 사람들에게 알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아래에서 서두에 인용된 말씀들의 의미를 상고(詳考)해 보고자 한다.

이사야(41:4)에서, ‘태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신일체(三神一體)로 계셨던 에덴동산의 그 시점을 의미하겠고, ‘나중’은 다시 삼신일체 하나님이 회복된 에덴동산에 계시게 되는 끝 날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다만 그 나중이 서기(西紀) 몇 년이 될 것이라는 특정 날짜에 대해서는 어느 인간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오직 신(神)만이 아는 영역이 될 뿐이다.

고린도전서(15:45)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즉 구세주라는 의미가 된다. 고린도전서(15:26)에서, ‘맨 나중’이라는 때가 되면 죽음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고린도전서(15:51~52)에서,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라 되었으니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11:7)에 기록된 ‘마지막 천사가 부는 나팔’이 되는 건 당연하다.

계시록(21:6)에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는 존재는 ‘나중’에 오시는 구세주를 의미한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상기 인용된 성경 구절에서 진정한 메시지의 핵심은 맨 나중 즉 말세에 죽음이 없어진다는 고린도전서(15:26)의 말씀이 될 것 같다. 죽음을 없애는 존재는 구세주 밖에 없다(이사야26:19). 그 뜻은 구세주는 말세에 이 세상에 출현하여 죽음을 없앨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망의 영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간에게 너무나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인용된 성경 내용을 묶어서 해석하자면 태초의 에덴동산에서 삼신일체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전락되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맨 나중’ 즉 ‘말세’에 살려주는 영인 구세주가 되어 오실 것이라는 해석이 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도 구세주만의 권능 안에 있는 것이니 인용된 모든 내용이 전부 구세주의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죽은 조상들의 영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세에 사는 후손들이 구세주를 만나 생수와 이슬성신으로 영생할 때 가능하다.

이들 내용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누가복음(18:8)의 내용을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눅18:8] 그러나 인자(人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방금 인용된 내용에서 인자(人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현 세 상에서 구세주로 추앙 받고 있는 예수에 의해 ‘구세주(救世主)’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다.

서두에 인용된 고린도전서(15:26)에서 구세주는 ‘맨 나중’ 즉 ‘말세(末世)’에 출현한다고 하였는데, 이 개념으로 인용된 누가복음 18장 8절의 내용은 표면적으로 보면 구세주가 올 때 세상에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기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와 마귀의 종이 되는 죄인들이 알 수 없게끔 그냥 평범하게 기록된 성경 구절도 있는데 실제 그 구절 속에 있는 참뜻은 마지막 나팔을 부는 즉 마지막 인을 때는 일곱째 천사 되신 구세주께서 이제그대로 인봉된 뚜껑을 열어 설명해주시므로 알게 된다.

그러하여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구절에 인봉된 참뜻은 ‘말세가 될 때까지 믿음이 한 번도 없었으며 말세에 구세주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말세의 주인공 되신 구세주에 의해서 믿음(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영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엢2:8)의 내용을 아래에 인용하도록 한다.

[엢2:8]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이란 이것이다’라는 식의 믿음에 대한 정의(定義)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인간의 종교단체들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믿음은 ‘누군가를 믿는 마음’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믿음이란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틀어서 엉터리로 만들어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선물은 당연히 그 선물을 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영생의 영 밖에 없다. 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은 영생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은 영생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죽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존재는 구세주 외는 없으므로 본문 서두에 인용된 7곳의 성경 말씀은 죽음을 소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는 나중 즉 맨 나중에도 출현하시게 될 것임을 알리는 동일한 내용이 되는 셈이다.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천사인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인용된 성경 내용 중 고린도전서(15:51~52)에서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천사인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로써, 초대 선민인 아브라함(첫째 천사)으로부터 장자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물려받은 이삭, 그리고 이삭(둘째 천사)으로부터 장자축복을 받은 야곱(셋째 천사)까지 즉 3대까지는 장자축복의 향방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4대 선민부터는 야곱의 12아들들 중 어느 아들(넷째 천사)에게 장자축복이 임하였는지가 성경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장자축복 행사 자체가 성경에서 완벽하게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중의 하나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장자축복을 어느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직접 장자축복 행사에 개입하실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아주 중대한 행사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성경에서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대사건(大)에 대해 성경을 공부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일말의 의심도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물론 그것은 시대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의 절대 알 수 없는 불가항력의 영역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시행되었던 ‘장자축복’ 행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 역시 인간의 영역은 아니겠지만 아버지로부터 장자축복을 받는 아들에게 무엇이 전해지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성경 구절이 등장한다.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을 보도록 하자.

[마22: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방금 인용된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다음의 성경 인용이 필요해진다.

[출29:45~46]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신관(神觀)이다(마3:16와 행9:4 참조). 그러나 출애굽기(29:45)에서는 하나님은 사람 속에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어 사람들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시편(82:6) 등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서 그러하다고 증거되어 있다. 또한 다음에 인용되는 구절은 선민(選民)의 몸 속에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렘전3: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이와 같은 성경 내용을 근거로 마태복음(22:32)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몸에 거(居)하시고 몸이 쇠하여 죽기 전에 장자축복을 받는 아들 이삭에게 자신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옮겨 드리고 이삭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을 옮겨 드렸음을 알게 하는 내용이며 또한 그것은 선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이동경로를 설명한 내용이 된다.

결국 사용된 “나중”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중의 하나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뜻이 동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뜻은 성경 구절(사59:20)의 말씀이 의미하듯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구속자(救贖者) 즉 구세주(일곱째 천사)를 불러 일으켜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상으로 원시반본(原始返本)시키시려는 것이다.*

승사 정수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5695-897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